

포천학교체육협의회 결성

“체육수업의 교수-학습 질 관리를 위해 매진”다짐



지난 14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체육관련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학교체육협의회 결성 및 체육교사연수가 실시됐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체육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체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포천학교체육협의회가 결성됐다.

지난 14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결성식은 초등학교 교사 30명과 중학교 교사 26명, 고등학교 교사 13명, 교장·교감 11명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천학교체육협의회(총회장 박정수 포천중 교감)는 ▶교사연구 모임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나후된 관내 체육현실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정보교류 및 선수육성방법 연구 ▶학교체육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결성됐다.

포천학교체육협의회는 체육전공 관리자 및 협의회장, 초등운동부 육성교 교장, 초·중·고 체육교사 등으로 구

성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천학교체육협의회 박정수 총회장은 “포천시와 교육청이 학교체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집행이나 협조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 결성하게 된 것이다”며 “이번 학교체육협의회 결성은 9월부터 논의되었고, 이번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구성에 관한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체육협의회는 관내 체육교사들이 최근까지 운영해오던 체육교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조직했고, 현재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초·중·고 각각 총회장을 선출, 총 4명의 회장단을 구성했다. 또 진행·경기·시설·의료분과 조직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박 회장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각종 학생체육경기대회를 기획, 진행, 심판 등 지원 업무 및 체육수업의 교수-학습 질 관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며 “포천교육청, 포천시청, 포천시체육협의회,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각종 체육활동 및 행사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 체육우수지도자 ⑧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차 승 룡

“축구 명문으로 飛上”



명문 축구구단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가산초등학교 축구부(맨윗줄 좌).

작년 12월에 가산초등학교(교장 김창성)에 부임한 차승룡(34)감독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에 늘 감사해 한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살핌 속에 자라온 가산초등학교의 축구가 이제 빛을 볼 때입니다”

차 감독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인양중학교와 인양공고, 인천대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도까지는 실업팀인 국민은행 선수생활을 한 차감독.

대학재학시절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 등 남다른 재능으로 오직 축구인생만을 걸어온 축구 ‘뽕’이다.

가산초 축구부의 감독으로 부임하게된 계기를 묻자 “가장 큰 이유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며 “축구가 빠진 인생은 없었고,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밝혔다.

가산초등학교 축구부는 1998년에 창단, 현재 7기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정종근 총감독을 위시하여 차승룡 감독, 지광준 코치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차 감독에 따르면 “창단한 후 2년은 지역 선배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들었다”며 지역주민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6학년 9명, 5학년 9명, 4학년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2,3학년은 특이적성교육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선수선발에 관해 “주로 학교내에서 발굴하거나 타 학교 선수를 스카웃 한다”며 “일년에 두 번씩 반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해 선수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가산초 축구부는 올해 전국단위 대회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뒀다.

“경기도지사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 최근 포천에서 개최된 협회코리아(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8강을 차지하

는 등 기량이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5학년 선수들이 참가한 협회 대회 결과를 두고 본다면 내년엔 기대해도 좋다”는 차 감독.

“선수들이 이번대회를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내년엔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의 지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차 감독은 “축구선수는 단체경기를 해야하고 순간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별도로 한자, 영어, 수학공부 등을 축구선수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동선수이기에 인성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운영방침에 따라 선수들 상호간에 육성 등을 하는 행위를 엄히 다스리고,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차 감독은 흥미위주로 축구를 지도해야 선수들도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산초 축구부는 그 어떤 학교보다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다.

하지만 차 감독은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빌릴 수 없다”며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한다.

특히 “지난 11일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후원 일일차점에서 1천만원이 넘는 수입이 들어와 도움을 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선수단 전용 버스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다.

차 코치는 마지막으로 “가산초를 명문학교로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후원회 : 농협 225014-52-117621(예금주 이관우)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국민생활체육포천시야구연합회 초대 회장 장승호

“순수한 열정으로 출범합니다”



장승호 회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야구연합회는 관내 5개의 야구팀 98명의 선수로 출발, 임원선출 등 조직구성을 마쳤으며, 회장은 2년 임기로 임원은 각 팀에서 한 명씩 총 5명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임원을 각 팀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야구연합회가 순수한 야구동호인들만의 모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며 “임원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함께 간다’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미 2005년도 계획을 마련해 두고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각 팀간의 조율을 통해 리그를 구성, 내년 4월경 연합회 출범 후 첫 번째 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다”며 “8월경에는 야구연합회의 이름으로 청소년야구교실이나 어린이야구교실을 열어 동호인 양성 및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경에 자체 리그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을 주축으로 경기도지사기 야구대회 참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내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장 회장.

“이는 연합회 발전에 고무적이다”며 “내부적인 결속을 튼튼히 하고 연합회를 이끌어 간다면 관내 최고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이런 자신감 뒤에는 열악한 운동조건 등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도 산재했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순수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에 비해 운동을 할 장소를 섭외하기 힘들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 야구에 대한 경비 경감과 마케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출전 팀의 후원 및 인터넷카페 등 홍보를 통해 팀운영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번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관내 초등학교에 야구부창단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어린 선수부터 육성해야 그 기반을 통해 성인야구도 더불어 발전할 것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 회장은 “연합회 출범을 도와준 생활체육회 임원 및 보이지 않게 애써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재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방학 맞이

초·중·고 스키캠프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박일서)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운영한다.

2004 프로그램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스키캠프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운영된다.

27~28일에는 어린이체능교실이, 28~29일에는 청소년체능교실이 포천 베이스타운에서 개최된다.

어린이체능교실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체능교실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각각 4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참가비는 초등학교생 4만7천원, 중·고등학교생 5만7천원이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상해보험가입과 스키장갑이 제공된다.

참가문의 031)531-8888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스키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

더불어자유적금

고객의 목돈마련 **농협**이 함께 합니다!

고객사은행사

- 가입대상 : 개인
- 계약기간 : 6개월 ~ 3년
- 가입금액 : 1,000원 이상(매월 200만원 이하)
- 회전기간 : 6개월, 1년
- 특 징 : 회전기간별 월복리 적용

- 대 상 : 더불어자유적금 신규가입자
 기 간 : 2004. 11. 11 ~ 2005. 2. 28일까지
 사은품
- 1등 : 디지털카메라 10명
 - 2등 : MP3플레이어 100명
 - 3등 : 가곡CD 2000명